

이사람

천안 뉴실크로드 제과 정판수

정판수씨가 이번 부처님 오신날에 거는 기대는 무척 크다.
지난해 그가 조성했던 불상을 계기로
이날 몇가지의 기획상품을 구상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과 서양문화의 조화.
이것은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서울국제빵 과자전(SIBA '93)에 출품된 작품중 설탕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뉴실크로드 제과점 주인인 정판수씨가 만들었던 이 작품은 종교와 제과의 절묘한 만남, 그속에서 피어나는 경외와 친근감을 나타내 보는 이로 하여금 색다른 감동을 준 작품이었다. 그가 부처상을 조성한 인연은 좀 색 다르다.

"대회를 얼마 앞두고 꿈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도 기억이 생생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스님을 찾아가서 꿈얘기를 했죠. 그 스님 말씀이 부처님의 뜻인 것 같으니 한번 불상을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 그는 겁부터 났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불교집안에서 자라 그는 불교에는 익숙한 편이었다. 그런데도 아무리 설탕으로 만든 모형이지만 부처님은 아무나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꿈이야기를 들어 주었던 스님이 그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다. 처사는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이 있고 자신도 축원을 빌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말에 용기를 얻은 그는 절을 돌아다니면서 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불심을 쌓았다. 또 수도하듯 정갈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하고 불상 만드는 공장을 찾아 다니면서 그 방법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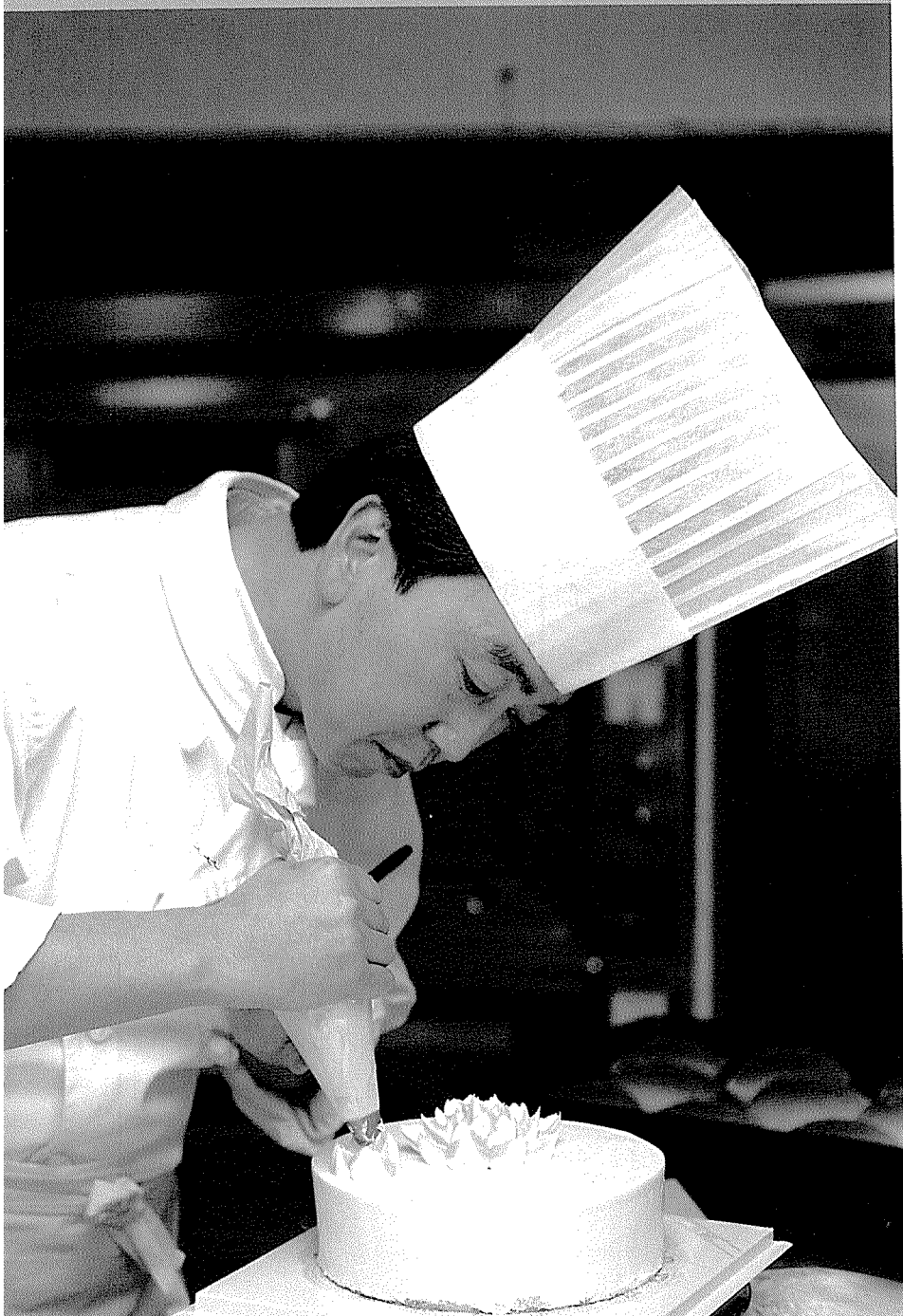
꿈에서 만난 부처 통해서 설탕으로 불상 조성

"정말 어려웠습니다. 잘안될 때는 '아미타불'을 외치면서 부처님께 지혜와 용기를 빌었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그 부처님은 대구에 있는 용화사에 모셔졌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이기는 하지만 부처님은 한 개인이 모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뵈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였습니다."

대구로 보내진 불상은 점안식을 하고 절에 영원히 모셔졌다. 그러나 그의 손을 떠난 부처님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마침 점안식이 있던 날은 대입시험이 열

◀ 버터크림을 이용해 연꽃을 만드는 정판수씨. 연꽃을 좀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초컬릿을 이용한 방법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일반인들에게 석가의 ‘저버’를 알리는 방법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진공스님. 그는 정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다.

▲그는 부처님 오신날 기획상품을 함께 만들 전국 각 지역의 ‘동지’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

마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수험생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이 아들, 딸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점안식을 본 어머니들이 마침 제가 스님과 신자들에게 드리려고 갖고 갔던 케이크와 찹쌀떡을 자신들에게도 나눠달라고 하더군요. 시험보는 아이에게 먹이고 싶다고요. 그러면 꼭 아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순간 그는 ‘불교도 행사때 케이크를 자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새삼 느꼈다고 한다. 기독교에 비해 위압감과 경직성으로 일반인이 다가서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불교. 행사용으로 친근한 케이크를 이용해 일반인에게 다가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또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와 선물류 등을 판매해 최고의 매상을 올리고 있는데 비해 부처님 오신날에는 별다른 기획상품이 없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우리 업계의 현실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교는 동양 것, 케이크는 서양 것이라는 생각이 부처님 오신날에는 감히 케이크를 선물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크는 단순히 축하를 위한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케이크에 불교적인 장식을 해서 신자들끼리 선물하고 그것을 통해 부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케이크도 하나의 또 다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그는 절을 찾아다니

“ 부처님 오신날에도 케이크를 팔 수 있습니다 ”

면서 스님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생전 처음 듣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를 이상하게 쳐다본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조성했던 불상의 사진을 보여주고 용화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니 그의 뜻을 이해해 주더라.

케이크의 문양을 다르게 해 불교신자들에게도 선물

그가 구상하고 있는 케이크는 3호정도의 크기이다. 또 불상은 일반인들이 ‘귀엽고 예쁘다’는 이유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크에는 불상을 올리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에 연꽃으로 석가가 생전에 가르치고자 했던 말씀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꽃은 아무곳에서나 뿌리를 내리지 않

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자라죠. 그러나 그 시궁창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비록 시궁창에서 자라지만 그곳의 물이 들지 않은 꽃이지요. 바로 인간속세의 유희와 욕망, 번뇌 등을 이겨내고 연꽃같이 고귀한 삶을 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꽃을 이용해 그분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버터로 짜넣는 연꽃의 수는 3호 기준으로 1~2송이 정도이다. 또 케이크의 밑바닥에는 물이 먹지 않는 종이로 연꽃을 만들어서 깔았다. 보라, 분홍, 백색 등의 종이는 케이크 위의 연꽃과 어울려 한껏 위엄을 자랑하고 있다. 그외에도 연꽃의 꽃수술 대신에 초를 꽃을 생각이다.

“생일 케이크에 꽃은 초의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환하게 떠오르는 초는 부처가 이 땅에 태어나 중생에게 가르침과 깨우침을 펴고 떠나신 것을 기리고 감사하는 의미로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사인카드는 '봉축 부처님 오신날'로 적었습니다. 가격이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값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원정도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상하는 진짜 기획상품은 케이크가 아니다. 케이크는 그의 불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가 더 크다.

“현재 구상중인 기획상품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주종류와 연근과자입니다. 만주는 될 수 있으면 최고급품 앙금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주 위에는 연꽃을 새기고요. 한편 연근과자는 연뿌리에 당조림을 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과자입니다. 3회 정도 당조림을 해서 건조시키면 그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만주와 연근과자는 날개로 판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선물용 상품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구상하고 있는 작품을 설명하는 그는 무척 신이 나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만든 제품이 시장성이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만주와 연근과자는 또 다른 상품이 될 수 있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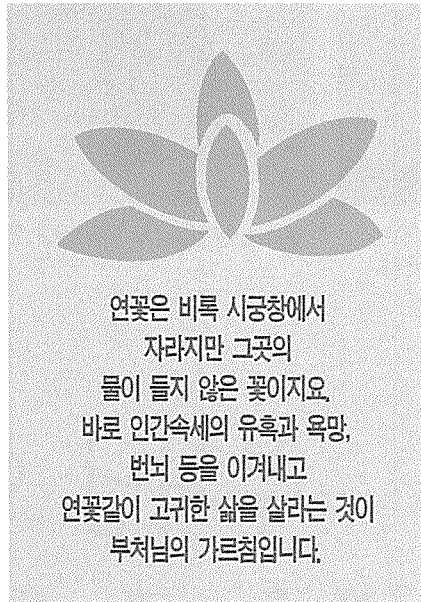
그 외에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절'은 무

▼무엇을 기원하고 있을까? 천안지역에 있는 가까운 절부터 찾아다니며 자신의 생각을 설득중이다.



한한 시장이다.

“연근을 믹싱해서 그 즙을 빵에 넣는 방법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이 빵은 연꽃모양을 넣기가 어려울 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드롤에 연꽃모양의 칼집을 내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빵이 구워지면서 칼집이 벌어지고 연꽃이 활짝 핀 모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누가 사냐구요? 어린이 법회에서 사용하는 간식으로 공급하면 됩니다.” 청산유수로 쏟아지는 그의 말은



그칠 줄을 모른다.

“절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에 비빔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밥해야지, 나물 무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겨우 지난달에 아내의 머리에 면사포를 씌워줬다. 그의 일을 이해해 주는 아내가 항상 고맙다.

쳐야지, 설겅이 해야지 또 쓰레기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스님께 건의했지요. 산채나물과 밥을 비벼서 밀가루로 싸고 고로케 마냥 튀긴 것, 산채나물을 이용한 샌드위치, 과일을 이용한 후루츠 사라다 등을 상자에 넣어서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냐구요. 스님께서도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밖에도 매 법회때마다 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케이크로 대신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다고 한다.

“신자들이 오면 초를 쬐을 수 있고 법회가 끝날때까지 그 초가 계속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케이크가 높고 커야 합니다. 또 촛물이 떨어져도 맛에 이상이 없어야 하구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케이크를 연구중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장 '절'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갖가지 방법들을 연구중에 있다. 그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사고틀을 고집하면서 안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몇분의 스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얻었습니다. 제 뜻을 이해하신 대구 용화사 진공스님은 이번 부처님 오신날에 케이크를 주문하셨습니다. 스님들이 신자들에게 이런 제품을 소개해 주고, 비빔밥으로 만든 빵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준다면 몇년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그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신과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전국을 그 혼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사는 곳의 절을 찾아 스님을 뵈고 이런 뜻을 얘기해 본다면 이 새로운 운동은 좀더 쉽게 확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설마라는 생각이 흑시라는 가능성으로 바뀌고 그의 새로운 시도는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그의 소원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조심스럽게 빌어 본다.  (글 김주희)